

타이거즈, 올해 황금장갑 '빈손' 되나



투수 임기영 투수 장현식 투수 정해영 2루수 김선빈 3루수 김태진 유격수 박찬호 외야수 최원준 외야수 터커 지명타자 최형우

KBO가 2021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총 84명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포지션별로 최고 활약을 펼친 10명만이 '황금 장갑'을 품에 안는다. 투수는 규정이닝을 충족하거나 10승 이상, 30세이브, 30홀드 이상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후보가 된다. 포수와 야수는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팀 경기 수 X 5이닝) 이상 수비에 나선 모든 선수가 후보 명단에 포함된다. 지명타자는 규정타석의 3분의 2인 297타석 이상을 지명타자로 소화할 경우 후보 자격을 얻는다. KBO 정규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격요건 기준이 충족된 포지션의 후보로 자동 등록된다. 타이틀홀더의 경우 여러 포지션 출전으로 어느 포지션에서도 수비이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최다 수비이닝을 소화한 포지션에서 후보가 된다. 수비이닝과 지명타자 타석을 비교해야 하면 해당 기준 대비 비율이 높은 포지션의 후보로 선정된다. KIA 타이거즈에서는 임기영·장현식·정해영(이상 투수), 김선빈(2루수), 김태진(3루수), 박찬호(유격수), 최원준·터커(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9명이 후보에 포함됐다. 포수와

KBO, 2021 골든글러브 후보 명단 84명 발표 ... KIA 9명 포함 포지션별 최고 활약 10명만 차지 ... 호랑이 군단 '무관' 그칠 듯

1루수 부문에서는 후보를 배출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타격왕' 최형우가 시상대에 섰지만 올 시즌에는 압도적인 활약을 선보인 선수가 없어 '무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투수 부문에서는 '홀드왕' 장현식과 '최연소 30세이브' 정해영이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선발과 두산 미란이라는 높은 벽이 있다. 타율 9위(0.307) 김선빈은 KBO 역대 최연소 100볼넷·출루율 7위(0.407)의 한화 정은원과 경쟁해야 한다. 최원준은 도루 2위(40개), 안타 3위(174개), 타율 15위(0.295)를 기록했지만 외야는 경쟁한 후보들이 즐비하다. 한편 올 시즌에는 전 포지션에서 후보를 배출한 팀은 나오지 않았다. 삼성과 롯데는 각각 유격수와 포수를 제외한 10개 포지션에 이

름을 올렸다. 특히 뜨거운 시즌을 보낸 삼성은 가장 많은 12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이번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1일 시작돼 7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인단은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할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중계방송사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황금장갑'을 품을 주인공은 오는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에서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공개된다. ◇2021KBO 골든글러브 후보 ▲투수(26명) : 데스파이네 고영표 김재윤(이상 KT) 미란다 최원준(이상 두산) 류계년 원태인 백정현 오승환(이상 삼성) 켈

리 수아레스 고우석(이상 LG) 요키시(키움) 폰트(SSG) 루친스키 신민혁(이상 NC) 스트레일리 박세웅 프랑코 김원중(이상 롯데) 임기영 장현식 정해영(이상 KIA) 카펜터 김민우 김현(이상 한화) ▲포수(4명) : 장성우(KT) 강민호(삼성) 유강남(포수) 최재훈(한화) ▲1루수(7명) : 강백호(KT) 양석환(두산) 오재일(삼성) 박병호(키움) 로맥(SSG) 강진성(NC) 정훈(롯데) ▲2루수(5명) : 김상수(삼성) 서건창(LG) 안치홍(롯데) 김선빈(KIA) 정은원(한화) ▲3루수(8명) : 황재균(KT) 허경민(두산) 이원석(삼성) 김민성(LG) 최정(SSG) 한동희(롯데) 김태진(KIA) 노시환(한화) ▲유격수(7명) : 심우준(KT) 오지환(LG) 김혜성(키움) 박성환(SSG) 마차도(롯데) 박찬호(KIA) 하주석(한화) ▲외야수(21명) : 배정대 조용호(이상 KT) 김재환 박건우 정수빈 김민태(이상 두산) 구자욱 박해민 김현곤(이상 삼성) 홍창기(LG) 이용규 이정후(이상 키움) 최지훈 한유섭(이상 SSG) 알테어 나성범(이상 NC) 손아섭 전준우(이상 롯데) 최원준 터커(이상 KIA) 장은호(한화) ▲지명타자(6명) : 페르난데스(두산) 피렐라(삼성) 추신수(SSG) 양의지(NC) 이대호(롯데) 최형우(KIA)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홉스퍼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에서 토트넘의 손흥민이 맨유 골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

ESPN 선정 발표

메시 1위·호날두 2위·음바페 3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29·토트넘)이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선정한 전 세계 포워드 순위 6위에 올랐다.

ESPN은 1일 전 세계 축구계를 대상으로 포지션별 상위 10명의 선수와 감독 순위 10위까지를 정해 발표했다.

손흥민을 포워드 부문 6위에 올린 ESPN은 "운 동량이 탁월하고 수비 가담이나 동료 선수들의 공간 창출 능력이 높은 수준이다. 힘이 넘치는 움직임과 공격 라인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 반경 역시

뛰어나다"며 "한국 대표팀은 거의 (손흥민의) '원 맨 공격' 수준으로 빠른 판단력에 기반한 골 결정 능력이 매우 좋다"고 평가했다.

올해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 장면으로는 8월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넣은 결승골을 선정했다.

손흥민은 앞서 2019년 잉어 부문 5위, 2020년 포워드 부문 7위에 올랐다.

포워드 부문 1위부터 5위까지는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 네이마르(파리 생제르맹)가 자리했다.

스트라이커 부문에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바이에른 뮌헨)가 1위, 엘링 홀란(도르트문트)이 2위에 올랐다. 3~5위는 카림 벤제마(레알 마

드리드), 로멜루 루카쿠(첼시), 해리 케인(토트넘) 순이다.

잉어 사디오 마네(리버풀),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더브라위너(맨체스터시티), 중앙 미드필더 은골로 칸테(첼시), 레프트백 앤디 로버트슨(리버풀)이 각각 1위에 올랐다.

센터백은 후병 디아스(맨체스터시티), 라이트백은 아슈라프 하킴(파리 생제르맹)이 골키퍼는 안 오블라크(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 최고의 선수가 됐다.

감독 순위에서는 토마스 투헬 첼시 감독이 1위로 뽑혔고 페르 가르디올라(맨체스터시티), 로베르토 만치니(이탈리아 국가대표), 위르겐 클롭(리버풀), 안토니오 콘테(토트넘) 순이었다. /연합뉴스

엄원상 'K리그 영플레이어상' 도전

2부리그 강등 확정 광주FC
4일 홈에서 인천 상대 최종전
'마지막 자존심' 지키기 관심

엄원상이 광주FC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다. 광주는 지난 37라운드 성남전 0-1 패배를 기록하면서 2년 만에 강등이 확정됐다. 간절했던 잔류 경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아직 광주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광주는 4일 오후 3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021시즌 최종전을 치른다.

끝내 승격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광주 선수들은 1부 리그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특히 엄원상이 최종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엄원상은 이날 경기 전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을 받는다.

엄원상은 지난 10월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그라운드에서는 K리그 영플레이어상 후보로서 면모도 보여줘야 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30일 올 시즌 K리그 1의 최우수감독상, 최우수선수상(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11 부문의 4배수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엄원상은 고영준(포항), 설영우(울산), 정상빈(수원)과 함께 '영플레이어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리그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한국 국적 ▲만 23세이하 ▲K리그 공식 경기 최초 출장 시즌으로 부터 3시즌 이내 ▲해당시즌 2분의 1 이상 출장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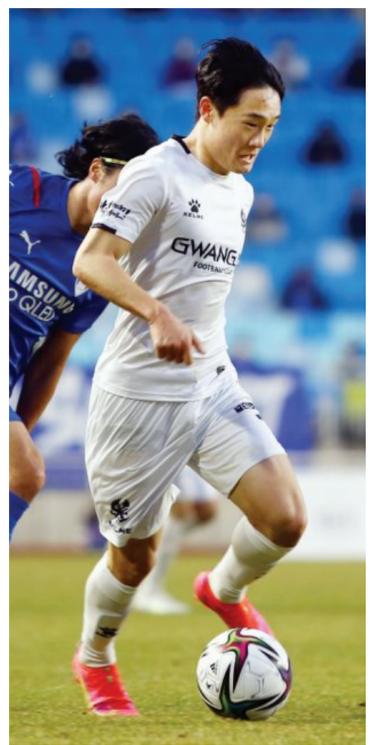
2019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난 1999년생 엄원상에게는 올 시즌이 '영플레이어상'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엄원상은 올 시즌 25경기에 나와 5골 1도움을 기록했고 지난 11월에는 국가대표로도 뛰는 등 시즌 후반이 좋은 페이스로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데뷔 2년 차인 미드필더 고영준은 32경기에 나와 3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설영우는 올 시즌 30경기에 나와 울산의 측면 수비를 책임졌고 1골 2도움도 만들었다.

정상빈은 프로 데뷔하자마자 27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만들면서 2017시즌 김민재에 이어 데뷔 첫해 영플레이어상 수상을 노리고 있다.

엄원상은 이번 시즌 광주 유일의 베스트11 후보



엄원상

로도 이름을 올리면서 팀의 '자존심'을 지켰다. 강등이 확정됐지만 인천전 승리는 광주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다. 시즌 내내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을 위한 승리 선물, 엄원상이 중심이 돼야 한다.

엄원상을 지켜보는 팬들의 심정도 남다른 전망이다.

'엄살라'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엄원상은 올 시즌에는 엄지성과 금호고 '엄브라더스'를 구성하면서 광주를 상징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내년 시즌 광주가 K리그2로 내려가야 하는 만큼 엄원상의 잔류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 11월 벤투호에도 재승선하는 등 물 오른 엄원상을 향한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 고별전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이번 최종전 주인공은 엄원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플레이어상 수상자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선보인 K리그 1 주인공들은 7일 열리는 '하 나원류 K리그 2021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